

美川仏壇

歴史

美川仏壇の歴史は室町時代といわれ、石川県で最初に仏壇製造が始まったとも伝えられている。19世紀中ごろに出た仏壇師の湊屋村次郎は、塗り物の技術に優れ、色物堆黒[いろものついこく]の技法で美川仏壇を一躍有名にした。湊屋の仏壇は、現在、美川を中心に県内に多く残っている。

旧・美川町(現・白山市)は明治維新後、一時、県庁所在地だったこともある大きな港町で、北前船[きたまえぶね]の寄港地として盛えたこともあって、美川仏壇は海路を利用して遠く北海道にまで販路を拡大していった。第2次世界大戦前には仏壇従事者が200人を超え、仏壇の町として地元民謡にも歌われるほど繁栄した。

特色

型板から文様を取り出す色物堆黒は美川仏壇独特の技法として知られている。色物堆黒はニカワと下地漆を固形になるまで素手で練り合わせ、それを1ミリの厚さまで丸太でむらなく平らに延ばし、そして、唐草や花鳥、鞘形[さやがた]模様などを彫刻したケヤキの板の上に敷き、足の裏で十分に踏み続け、その図柄の型を起こす。最後にハンダで白木状態の須弥壇[しゅみだん]や来迎柱[らいごうばしら]に張り、金箔を施して完成するものである。

また、秋田ヒバやイチョウを使った太く丈夫な木割[きわり]や錆地[さびじ]による堅牢な下地塗を基に、蛇腹[じゃばら]細工、粉[もみ]がら虫喰塗[むしくいぬり]、螺鈿[らでん](青貝塗)、金模様打金具などの独特の技法が伝えられている。



미카와불단

역사와 특색

미카와불단의 역사는 무로마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시카와현에서 처음으로 불단제작이 시작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배출된 불단장인 미나토야무라지로는 옷칠기법이 뛰어났으며, 이로모노쓰이코쿠 기법으로 미카와불단을 일약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구 미카와마치는 메이지유신 후, 한때 현청 소재지가 있었던 큰 항구도시입니다. 기타마에부네의 기항지로서 번창했던 시기도 있어, 미카와불단은 해로를 이용해 멀리 홋카이도까지 판로를 확대해 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불단 종사자가 200명을 넘어 불단의 도시로 번영했었습니다.

자바라 세공, 모미가라무시쿠이 칠, 나전(아오가이누리), 금으로 만든 장식 등의 독특한 기법이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白山市(하쿠산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仏壇(불단)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美川仏壇協同組合(미카와불단 협동조합) 〒929-0224 白山市美川中町イ103-5(하쿠산시 미카와나카마치 이 103-5) TEL (076) 278-3938